**교제와 나눔**

**\*\*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\*\***

**ㆍ토요기도회:** 매주 토요일 07시 Teestube

**ㆍ2018 유럽 KOSTA:** 총 14명 은혜 중에 다녀 왔습니다.

**ㆍ나라주일:** 오늘 2부 예배 후, 나라별로 모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세요.

**ㆍ여선교회 월례회:**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

**ㆍ구약역사읽기:** 3월 8일(목)부터 2시간씩 12주, 매주 19시 직업학교 18번 방

성경-창, 출, 민, 수, 삿, 룻, 삼상하, 왕상하, 대상하, 스, 느, 에, 단, 학, 스, 말

**ㆍ방문:** 신정섭-최원자, 이솔, 백민, 서천경

**ㆍ부임:** 박현 전도사(청소년부)

**ㆍ생일:** 한영자, 탁예은

**◆말씀일기 일정**

일/행21:27-36 월/행21:37-22:11 화/행22:12-29 수/행22:30-23:11

목/행23:12-30 금/행23:31-24:9 토/행24:10-23 일/행24:24-25:12

**◆114 운동-**하루**(1)** 한번**(1)** 말씀일기 & 성경 **(4)**장 통독

**(성경 200독 대행진: 144독)**

**◈예배위원 안내◈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**2월 25일** | **3월 4일** | **3월 11일** | **3월 18일** |
| **예배기도** | 백능현 | 조경숙 | 백울리 | 나지홍 |
| **말씀일기** | 정정아 | 유근임 | 김다니엘 | 서연주 |
| **안내위원** | 정기승, 예배부 | 신형만, 예배부 | | |
| **헌금위원** | 강일구, 안희숙 | 김종권, 민명희 | | |
| **애찬봉사** | 나라주일 | 밥상 넷 | 밥상 다섯 | 밥상 여섯 |

35-8호 2018년 2월 25일



**“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"**(골 3:14)

주일 1부예배: 12:15

주일 2부예배: 14:00

주일 유초등부 예배: 14:00

주일 청소년부 예배: 13:30

토요기도회: 07:00

선교성경아카데미(MBA):

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

**담임목사/ 손교훈** Kyo-Hoon Sohn

☏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

**협동목사/ 이광열** Mike Lee

☏ 0211-4166 3284 HP. 0157-7388 7498

**교육목사/ 이재용** HP. 0157-5346 6942

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 선교교회

**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.de**

**교회 주소Alte-Landstr. 179, 40489** **Düsseldorf**

**주 일 예 배** (사순절 둘째 주일) esdienst)**(** **weihnachtsgottesdienst)Weihnacht**

오

인도: 손교훈 목사

|  |  |
| --- | --- |
| ※입례/Eingang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………………… | 다함께 |
| ※송영/Eingangslied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찬양대 |
| ※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9장 2절 ………………….………… | 다함께 |
| ※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성시교독/Wechselwort ……………….. 교독문125번 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......………… 292장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다함께 |
| 기도/Gebet ………......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백능현 집사 |
| 말씀일기/Bibeltagebuch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찬양/Loblied ....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………… | 정정아 집사  찬 양 대 |
| 성경봉독/Text zur Predigt …........… 고전 13:4-7 …..….....……..…....…... | 다함께 |
| 설교/Predigt ……...…........………....... **사랑이라면** .....……….......…...…... | 손교훈 목사 |
| 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89장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합심기도/Gebet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봉헌/Kollekte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다 함 께  다함께  다함께 |
| 교제와 나눔/Bekanntmachung 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………… | 인 도 자 |
| ※주기도송/Vaterunser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…………… | 다함께 |
| ※축도/Segen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 | 손교훈 목사 |

**※는 함께 일어섭니다.**

**◈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행 20장 ‘성령에 매여’ ◈**

그런 말이 있다.

부러우면 지는 거라고.

하지만, 나는 다시 바꿔서 말하고 싶다.

부러우면 닮게 된다고.

한 사도의 장엄한 인생은 간단히 부럽다고 말하기에는

분명 힘들고 고단한 삶이겠지만

그래도 “성령에 매여”(22) 가는 길은

내가 외면할 수 없는 길이다.

장로들과 교우들이 다 인정하는 바울의 지난 날(18)의 발걸음은

내 남은 사역 길에 걸어가야 할 모습이리라.

“모든 겸손과 눈물(로)…시험을 참고 주를 섬(기고)…

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…거리낌 없이…전하여 가르치고…

하나님께 대한 회개와…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(하고)…

(오직) 성령에 매여…(어떤)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(하여도)…

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(위해서)…

나의 생명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(리라)”(19-24).

이것이 적어도 “성령에 매여” 가는 사도를 부러워하는 자가

마땅히 가질 수 밖에 없는 ‘사명 선언문’이다.

어쩌자고 바울이 부럽다고 말했는가?

두려움과 부끄러움이 함께 밀려 온다.

그래 여기서 말 바꾸면 그게 지는 거다.

그의 기적만 부럽고, 그의 신앙의 기개는 부럽지 않다면 그게 지는 거다.

나는 여전히 바울이 부럽다.